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 주식으로 돈 벌었다

신한증권, 올해 1-11월 거래 분석
평균 수익 912만원...33% '손실'
코스피 수익 상위 삼성·하이닉스

올해 개인 투자자 10명 중 7명이 주식거래를 통해 수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1-11월 국내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67.0%가 수익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평균 수익액은 912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33.0%는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고 평균 손실액은 685만원이었다. 수익 투자자 중에서는 수익액 '100만원 이하'가 54.4%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32.3%, '1천만원 초과'가 13.3%였다. 손실액 구간은 '100만원 이하' 57.1%, '100만원 초과~1천만원 이하' 30.1%, '1천만원 초과' 12.9% 순으로 집계됐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의 희비가 가장 엇갈린 종목이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투자자 가운데 81.4%는 평균 2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18.6%는 평균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수익을 실현한 고객의 매도 단가는 '7만~8만원대'가 35.0%로 최다였고, '5만~6만원대' 34.2%, '9만원 이상' 30.9%가 뒤를 이었다. 주가가 1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던 시점에 매도한 비율은 0.5%에 그쳤다. 손실을 본 고객의 매수 단가는 '5만~6만원대'가 53.3%로 과반을 차지했고 '7만~8만원대' 32.3%, '9만원 이상'은 14.4%였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종목에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71.3%가 수익을 실현했고, 코스닥 종목 매도 고객은 수익(52.8%)과 손실(47.2%) 비중이 비슷했다. 올해 고객 수 기준 코스피 수익 상위 종목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이 포함됐다. 손실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 카가오, NAVER가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로보티즈,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 수익 상위 종목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휴믹로봇은 손실 상위 종목에 들어갔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의 성과는 지수와 종목 선택과 매매 시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며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농심, 말차맛 빵부장 출시 18일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농심 베이커리 스낵 신제품 '빵부장 말차빵'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aT-베트남항공, 글로벌 K-푸드 마케팅 '맞손'

포도·딸기 등 기내식 홍보영상 송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18일 "신선 포도와 딸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통합조직인 한국포도수출연합회, (주)케이베리와 손잡고 베트남항공 기내식 제공과 기내 모니터 광고를 진행하며 국경 없는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aT는 지난 6월 연간 약 2천600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베트남항공과 K-푸드 소비확대를 위한 업무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K-푸드 홍보 범위를 꾸준히 넓혀왔다.

MOU에 앞서 5월에는 베트남으로 처음 수출된 국산 참외를 기내식 디저트로 시범 제공했고 6월부터는 두유, 인삼차, 쌀음료를 제공해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왔다. 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11월 한 달 동안에는 베트남항공 국제선 비즈니스석의 기내식 디저트로 사인머스켓, 신품종 포도 '글로벌스타'를 제공했다. 이어 이달부터는 2주간 신품종 딸기 홍보를 제공해 국산 과실류의 우수한 맛과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업은 최근 베트남 경제 회복과 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기내 서비스 고급화 강화에 주력하는 베트남항공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한국 포도와 딸기의 위상을 높이고 동남아 수출 확대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전 aT 수출식품이사는 "베트남항공과의 협력은 K-푸드의 맛과 품질을 글로벌 소비자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과실류 신품종의 동남아 시장 안착을 위해 다양한 홍보·수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NH농협은행 광주본부, 교육가족 프로배구 관람 후원

학생·교사 1천100여명 경기 즐겨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18일 "전날 광주 관내 학생 및 교사 등 1천100여명이 광주페퍼스타 다음에서 열린 프로배구 경기를 단체 관람할 수 있도록 후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학생·교사들은 여자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과 IBK기업은행의 경기를 함께 관람하며 스포츠의 열기를 가까이에서 체감했다. '광주교육가족 배구장 가는 날'은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제동행 및 교육복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NH농협은행 광주

본부가 후원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평소 프로스포츠를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현장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 및 학생이 교실 밖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학교구성원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이 생동감 넘치는 스포츠 현장에서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디자인진흥원, '소공인 육성' 중기부장관 표창

인쇄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공로

광주디자인진흥원은 18일 "전날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년 소공인 성과대회'에서 지역 소공인 성장·육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원단체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소공인 성과대회는 제조산업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 발전에 기여한 전국의 ▲우수 소공인 ▲유공자 ▲지원

단체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소공인 진흥과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인쇄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동구 서남동 일대 인쇄소공인 등을 위해 ▲특화교육 ▲사업화 지원 ▲홍보마케팅 ▲판로지원 등을 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공예 등 지역 소공인을 위한 역량강화, 제품개발, 디자인, 판로 등을 지원하며 지역 소공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주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의 소공인들은 지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역소공인의 시장경쟁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심의번호
220603-중-139779